

# 리회장 연차 표어(Theme)로 본 로타리

1949-50년도부터 표어의 전통 시작, 당시 시대상황 반영하며 전세계 로타리안들에게 봉사의 영감과 동기 부여

1949-50년도에 퍼시 C. 혹은 리회장이 지도부를 위한 4대 목표를 정립하면서부터 로타리 연례 표어의 전통이 시작됐다.

그 이후 로타리 표어는 길이와 메시지가 다양했지만, 매년 전세계 로타리안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1961-62년에 조셉 애비 회장의 '행동하자', 1968-69년에 키요시 토가사키 회장의 표어 '참여'는 한 단어로 된 짧은 표어였다.

1963-64년 칼 밀러 회장은 당시 시대에 맞는 표어로 '우주 시대의 로타리의 도전에 대응하자'를 선정했다. 이외에도 당시 시대상황을 반영한 표어로는 1980-81년에 랄프 클라리히 회장이 선정한 '봉사를 위해 시간을 내자'와 1973-74년 윌리엄 카터 회장의 '말보다 실천을'이었다.

상업 광고와 유사한 표어도 있었는데 '로타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세계를' (리처드 에반스 회장, 1966-67)와 '빨치자 봉사의 손을!' (클렘 레노프 회장, 1978-79)가 그것이다.

은유법으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바로 '다리'였다. 1959-60년 해롤드 토마스 회장은 로타리안들에게 '우정의 가교를 세우자'라고 촉구했고, 1982-83년 히로지 무카사 회장은 '인류는 하나 - 전 세계에 우정의 다리를 놓자'라고 선언했다.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표어는 1981-83년에 스탠리 맥카프리 회장이 선정한 '로타리를 통한 세계의 이해와 평화'와 1984-85년에 카를로스 칸세코 회장이 로타리안들에게 촉구한 '봉사의 새세계를 찾자'였다.

다른 일부 표어 중에는 개인을 강조한 것도 등장했는데, '당신이 로타리다' (에드 맥라플린 회장, 1960-61), '친절은 나부터' (언



**ROTARY:  
MAKING A DIFFERENCE**  
**로타리, 변화를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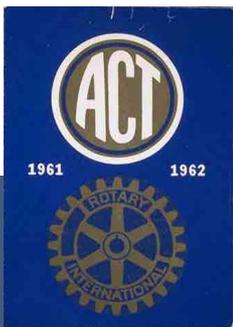
2017-18

스트먼 회장, 1985-86), '로타리의 미래는 당신으로부터' (존 케니 회장, 2009-10년도)가 그것들이다.

테마를 통해 로타리안들에게 클럽이 보다 많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로타리를 나누며 남을 위해 봉사하자',

'봉사의 햇살을 밝히자'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드높이자'와 같은 표어들을 보면 리회장은 로타리안들에게 매년 중요한 역점 프로그램을 한 가지씩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라젠드라 시부 회장(1991-92년)은 모든 로타리안들에게 '보라 - 너 자신을 넘어서'를, 그리고 1992-93년 클리프 독터만 회장은 로타리안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돕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또한 루이스 지아이 1996-97년도 회장의 표어는 '선견과 실천으로 미래를 이룩하자'였고, 1997-98 글렌 킨로스 회장은 '보여주자 로타리의 관심'이란 표어를 제안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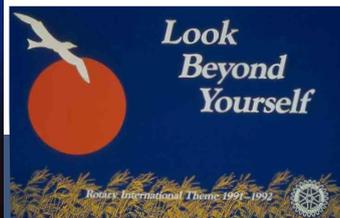
1999-2000년도 카를로 라비짜 회장은 '로타리 2000: 한결같은 믿음으로 꾸준히 봉사하자'라고 말했고, 2000-01년도 프랭크 데블린 회장은 '실정을 인식하여 행동으로 옮기자'라고 했다. 그리고 2001-02년 리처드 킹 회장은 '우리의 과제는 인류'라고 독려했다.



1961-62



198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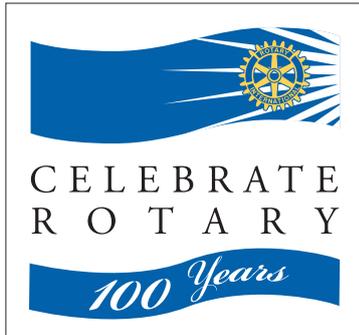


1991-92



1995-96

2004-05



2005-06



2000년대 이후의 표어들이인 '사랑의 씨앗을 뿌리자' (2002-03년도 비차이 라타쿨 회장), '이웃에 도움의 손길을' (2003-04년도 조나단 마지막베 회장), '로타리를 경축하자' (로타리 창립 100주년인 2004-05년도 글랜 에스테스 회장), '앞장서 나아가자' (2006-07년도 윌리엄 보이드 회장), '로타리를 나눔의 손길로(2007-08년도 윌프리드 윌킨슨)', '세상에 선물이 되자' (2015-16년도 K.R 라빈드란)', '로타리, 인류에 봉사하자(2016-17년 존 F.점 회장)' 와 같은 테마의 내용들은 로타리안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동을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로타리 2세기의 첫 해였던 2005-06년도 칼 빌헬름 스탠해머 회장은 로타리의 모토 '초아의 봉사' 를 그대로 그 해 표어로 제정하기도 했다.

특히, 2008-09년도는 우리 지구 총재 출신으로 한국 최초 국제 로타리 회장으로 활동한 이동건 회장이 "Make Dreams Real" 이라는 표어를 정해 영유아 사망률 감소, 소아마비 박멸 등 로타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해였다.

지난 2010-11년도 레이 클링킨스미스 회장의 '내 고장을 튼튼 하-세계를 하나로' 와 2011-12년도 칼리안 배너지 회장의 '나를

살피고 세상을 섬기자' 와 같이 로타리의 기본을 잘 지키면서 내 실을 다지자는 의미의 표어가 제시되기도 했다.

최근 로타리의 화두는 '변화' 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단체로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표어들이 최근 들어 계속 등장하고 있다. 2013-14년도 론 D. 버튼 회장이 정한 표어는 "Engage Rotary Change Lives" 로 "로타리 참여로 삶의 변화를" 이라고 표현했다. 2014-15년도 개리 후앙 회장의 테마인 "Light Up Rotary(빛내자 로타리)", 그리고 금년도 테마인 이안 라이즐리 회장의 'Rotary, Making a Difference : 로타리 변화를 만들자' 역시 로타리에 적극 참여하고 변화를 창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발표된 배리 래신 차기 회장의 2018-19년도 테마 '세상에 감동을 : BE THE INSPIRATION' 은 '전세계 로타리안들에게 봉사의 영감과 동기를 부여하자' 는 뜻을 담고 있다.

20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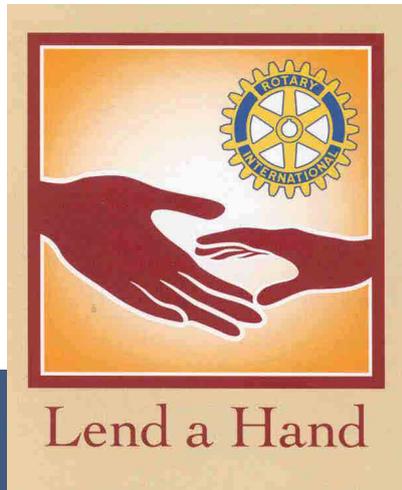


2009-10



세상에 감동을 BE THE INSPI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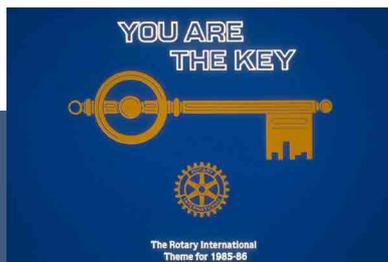
2018-19



2003-04



2011-12



1985-86